

2019 수능 <일동장유가>

1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2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3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4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5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6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7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8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9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10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11상하좌우 배 방 널은 앞뒤이 우는구나
심란한 화자는 풍랑으로 고생함
12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13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14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15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16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해 돋은 후의 장관에 대한 감탄
(중략)
17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18필담(筆談)으로 써서 뵈되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19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20일생 처음 보았으니 앞디어 묻잡나니
21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22내 웃고 써서 뵈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23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24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25세상에 낫삽다가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26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27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28아롱보(褸)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29이마에 손을 얹고 앞디어 들이거늘
30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되
31각색 대단(大緞) 삼단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32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뵈되
33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34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35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36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문답을 통해 전승상이 나의 글솜씨에 감탄하고 사례하고자 함

현대어 풀이

1선실에 누워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2가뜩이나 마음이 어지러운데 큰바람이 일어나서,
3태산(1532m) 같은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4만석을 실을 만한 큰 배가 마치 나뭇잎이 나무끼듯
5(배가 물결에 따라) 하늘 높이 올랐다가 땅 밑으로 떨어지니,
6두 발(약 18m)이나 되는 쌍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7선 두 폭의(52조각을 하나로 연결하여 만든) 짚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렀네.
8큰 우렛소리와 작은 벼락은 등 아래에서 진동하고,
9성난 고래와 용은 물속에서 장난치는 듯하네.
10선실에서는 요강과 가래와 침을 뱉는 타구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11상하 좌우에 있는 선실의 널빤지는 저마다 소리를 내며 우는구나.
12이윽고 해가 돋거늘 굉장한 구경을 하여 보세.
13어나 선실 문을 열고 문설주(문기둥)를 잡고 서서,
14사면을 바라보니 아아! 굉장하구나,
15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
16넓고 넓은 우주 속에 다만 큰 물결뿐이로세.
(중략)
17그중에 전승산(일본인 문인)이 (나의) 글 쓰는 모습을 바라보고
18글로 써서 문답할 때 써서 보여주되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기
에 퇴석 선생”
19글을 어렵거나 힘들지 아니하게 짓기로 이름났는데 선생의 빠른 재
주
20일생 처음 보았으니 앞드려 묻자오니
21마땅히 귀한 별호(본명이나 자 이외에 쓰는 이름)가 퇴석인가 합니
다.”
22내가 웃고 써서 보여주되 '늙고 병든 둔한 글을
23칭찬하고 장려하기를 지나치게 하니 부끄럽고 창피하기 끝이 없소
이다
24전승산이 다시 글을 써 보이되 '소국(왜)의 천한 선비인 제가
25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장한 구경하였으니
26저녁에 죽어도 남은 한이 없습니다.' 하고
27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28아롱아롱한 점이나 무늬가 그려진 보자기에 무엇을 싸고 삼나무로
만든 궤에 무엇을 넣어
29이마에 손을 얹고 (공손하게) 앞드려 (보자기와 삼목궤를) 들이거늘
30받아 놓고 곁봉을 보니 봉한 위에 쓰였되니
31갓가지 빛깔의 대단(한단.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하나) 3단이요 43
냥의 은돈이로다.
32놀랍고 어이가 없어 종이에 써서 (전승산에) 보이되
33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34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35그 뜻은 감격하나 의로움에 크게 옳지 아니하니
36받지 않고 도로 돌려 주니 이를 허물하지 말지어다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8 수능 <비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뵈 듯허여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뉘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술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허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신고(辛苦)한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흔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홀*이 업세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밝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흐려니
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냐
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하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났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그 아니 조홀쏘냐
우리는 너희만 못허야 시름겨워 허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갓허야 갈 길 몰라 허노라 <제9수>

현대어 풀이

<제1수>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스스로에게 묻노라, 이내 꿈아
만 리나 먼 요양을 어느 사이에 다녀왔는가
반갑도다. 학을 타신 신선을 친히 뵈 듯하다.

<제4수>
박제상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왕가의 근심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역만 리 떨어진 곳의 왕세자를 누가 감히 모셔오리
이즈음 치술령에 맺힌 전설을 내내 슬퍼하노라

<제6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들이 많기도 많구나
어렵고 치욕스러운 화친은 누구를 위해 한 것인가
슬프다. 조구리가 이미 죽었으니 참승할 사람이 없구나

<제7수>
구중궁궐 달 밝은 밤에 우리 임금의 근심이 정말 많으려니
멀리 오랑캐 땅의 왕자를 잊을소냐
그 외에도 억만창생 백성들을 못내 걱정하시는구나

<제8수>
굴짜기에 나있는 풀은 봄비에 저절로 길어
애통해 할 일이 없으니 그 아니 졸을 쏘냐
우리는 사람이 되어 너희만 못하니 시름겨워 하노라

<제9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구름 깊어진 곳 어디가 서울인가
바람에 이리저리 구르는 검불같이 갈 길 몰라 하노라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7 수능 <연행가>

- 1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 2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 3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 4 이편저편 화류교의(樺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 5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 6 화창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 7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 8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 9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 10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 11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 12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덩뻑 찍어
- 13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 14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 15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 16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 17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 18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 19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 20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 21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 22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 23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방 머루 비자(榧子) 등물(等物)
- 24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 25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 26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 27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 28 뜰에 내려 복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 29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 30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 31 흥정 외상 셈하러 주주리는 지저귄다
- 32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 33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 34 한 달 닳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 35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 36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돈절하니
- 37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 38 송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 39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 40 서풍이 샅샅하여 가을빛이 꽤히 난다

현대어 풀이

- 1 많은 책을 탁자 위에 쌓아 놓고
- 2 자명종(시계)과 자명악(악기)은 저절로 소리가 나며
- 3 좌우로 당전(양탄자), 담방석, 백전요(이불) 등을 깔아 놓은 곳에
- 4 청나라와 조선 양측이 화류 나무 의자에 서로 마주 걸터앉고
- 5 청나라 사람들이 인사로 차를 갖다 준다
- 6 차를 (그림이 그려진) 잔에 가득 부어 권하는데
- 7 푸르고 노란 빛의 향기가 가득한데
- 8 서로 언어가 달라서
- 9 말 한마디 못하고 덤덤히 앉아 있으니
- 10 귀머거리 병어리인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 11 글은 같아 글로 말을 하고자 한다
- 12 벼루의 먹에 붓을 찍어
- 13 종이에 글을 써서 뜻을 전달 하니
- 14 대화를 주고받으니
- 15 지극한 정이 서로 통하는구나
(중략)
- 16 청나라 황제가 우리 조선 사신 일행에게 상을 내리는 의식을 거행한다.
- 17 통역관, 말 관리자, 사내들까지
- 18 돈과 비단을 받아 놓고
- 19 절하여 머리를 조아린 후 돌아오니
- 20 예부에서 잔치를 베풀다기에
- 21 세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 22 대청 위에 상을 차려 놓은 모양이
- 23 청나라의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 24 굶는 상을 벌이듯 주위에 떠벌였다
- 25 다 한 사람씩 앞에 받아 놓으니
- 26 비위가 좋지 않아 먹을 것이 없네
- 27 술 석 잔을 마시고 잔치가 끝나 일어서서
- 28 뜰에 내려 황제가 있는 북쪽을 향해 감사의 예를 표한 후
- 29 관소로 돌아와 돌아갈 날짜를 정하니
- 30 짐을 싸느라 다들 어수선하고
- 31 외상 값을 세는 것만 같다
- 32 왕에게 보고 할 문서를 미리 보내고 사신보다 먼저 돌아가는 군인 관리를 배웅하고
- 33 7월 11일에 (조선에) 돌아가려 (청나라를) 떠나오니
- 34 청나라에서 한 달하고도 5 일을 있다 떠나려니 마음이 시원하다
- 35 하늘 한 쪽 끝처럼 우리 서울 갈 길이 너무 멀다
- 36 바람과 먼지가 부는 가운데 집 소식 끊긴지 오래되었으니
- 37 4~5 개월 타국에 나와 있는 내 신세에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깊다
- 38 송문문을 통해 통주로 향해 가니
- 39 (청나라에)올 적에 한 참 곡식을 심더니만 지금은 추수가 한창이요
- 40 바람이 샅샅하여 가을빛이 심하게 난다.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6 수능 <강호사시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 샀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웁도 역군은이샀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옵도 역군은이샀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옵도 역군은이샷다

<제4수>

현대어 품어

강호에 봄이 오니 절로 흥이 돋는구나.
 막걸리 냇가에 앉아 먹는데 금린어(쏘가리) 안주 삼고
 이 몸이 한가히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 [1수]

강호에 여름이 오니 초당에 일이 없다.
미더운 강의 파도는 바람을 보내나니
이 몸이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2수]

강호에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살이 오르는구나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띄워 던져놓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 [3수]

강호에 겨울이 오니 눈 깊이가 한 자가 넘구나
 샛갯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지어
 이 몸이 춥지 않음도 역시 임금의 은혜구나 [4수]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5 수능 <상사곡>

- 1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게는 서러운가
- 2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 3 양대(陽臺)에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 4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다
- 5 청조(靑鳥)도 아니 오고 백안(白鴈)도 그쳤으니
- 6 소식도 못 듣거늘 임의 모습 보겠는가
- 7 화조월석(花朝月夕)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 8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겨
- 9 나도 장부(丈夫)로서 모진 마음 지어 내어
- 10 이제나 잊자 한들 눈에 절로 밝히거늘 설워 아니 그리워할쏘냐
- 11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삼 년 같도다
- 12 원수(怨讎)가 원수 아니라 못 잊는 게 원수로다
- 13 사택망처(徙宅忘妻)는 그 어떤 사람이고
- 14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秦楚)엔들 아니 가라
- 15 무심하고 쉽게 잊기 배워나 보고 싶구나
- 16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 17 임 향한 총명*이야 사광(師曠)인들 미칠쏘냐
- 18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질어 가니
- 19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 20 수척한 얼굴이 시름 겨워 검어 가니
- 21 취한 듯 흐릿한 듯 청심원 소합환 먹어도 효험 없다
- 22 고향(膏肓)에 든 병을 편작(扁鵲)인들 고칠쏘냐
- 23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고 있노라
- 24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이리되자 맺었던가
- 25 비익조(比翼鳥) 부부 되어 연리지(連理枝) 수풀 아래
- 26 나무 엮어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망정
- 27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 28 동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었다
- 29 예로부터 이른 말이 견우직녀를
- 30 천상(天上)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마는
- 31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마는
- 32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시고

현대어 풀이

- 1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남들에게는 서러운 일인가
- 2 아마도 서러운 것은 임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 3 임과의 사랑에 구름비가 내린 지 (임과 헤어진 지) 몇 해가 되었는가
- 4 반쪽 거울은 녹이 슬어 먼지 속에 묻혀 있다
- 5 (소식을 전해주는) 청조도 오지 않고 흰 기러기도 오지 않으니
- 6 소식도 못 듣는데 임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 7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에 울며 (임을) 그리워할 뿐이로다
- 8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다짐해
- 9 나도 씩씩한 남자로서 독한 마음을 먹어서
- 10 이제는 잊고 싶어도 자꾸 눈에 떠오르니 서러워서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11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삼 년 같구나
- 12 내가 임을 잊지 못하는 것이 원망스럽구나
- 13 이사할 때 아내를 깜박 잊고 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 14 그사람 있는 곳 알 수 있다면 아무리 먼 진초엔들 가지 않겠는가
- 15 무심하고 쉽게 잊는 것을 배워나 보고 싶구나
- 16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 17 임 향한 마음은 사광도 미치지 못한다.
- 18 임에 대해 기억하는 힘이 좋은 것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질어 가니
- 19 잘 먹던 밥도 못 먹고 잘 자던 잠도 못 잔다
- 20 야위고 마른 얼굴이 시름 때문에 검어지니
- 21 취한 듯 흐릿한 듯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 22 마음속 깊이 든 병을 편작인들 고칠 수 있겠는가
- 23 목숨이 소중하기에 죽지 못해 살고 있노라
- 24 처음에 인연 맺을 적에 이렇게 헤어지려고 맺었던 것인가
- 25 비익조라는 전설 속의 새 부부가 되어 연리지 수풀 아래
- 26 나무를 엮어서 집을 짓고 나무 열매를 먹을망정
- 27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루도 헤어지지 않기를 원했건만
- 28 동쪽과 서쪽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었구나
- 29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견우직녀를
- 30 하늘나라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고 하지마는
- 31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마는
- 32 안타깝구나 우리는 몇 개의 은하수가 가리고 있어서 이토록 보지 못하는가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5 수능 <관동별곡>

- 1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 2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늬야 놉뉘던고
- 3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 4 넓거나 넓은 천하 엇찌하야 적닷 말고
- 5 어와 더 디위롤 어이하면 알 거이고
- 6 오루디 못하거니 늑려가미 고이홀가
- 7 원통골 그논 길로 사자봉을 차자가니
- 8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어세라
- 9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빅구빅 서려 이서
- 10 주야의 흘너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 11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 12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13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어
- 14 외나모 써근 득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흐니
- 15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애 세여 두고
- 16 은하수 한 구빅롤 촌촌이 버혀 내여
- 17 실그티 플터이서 뵈그티 거러시니
- 18 도경(圖經) 열두 구빅 내 보매논 여러히라
- 19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 20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하러니
- 21 산중을 막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 22 남여(籃輿) 완보(緩步)하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흐니
- 23 영롱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논 이별을 원(怨)하논 듯

현대어 풀이

- 1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 본 사람이 그 누구이신가
- 2 동산과 태산중에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던가
- 3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 4 넓고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말하는가
- 5 아아, 저 (천하가 작다고 한 공자의 높은) 경지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 6 오르지 못하겠으니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 7 원통골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 8 그 앞에 넓고 평평한 바위가 ‘화룡’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되었구나
- 9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 같고
- 10 밤낮으로 흘러내려 넓은 바다로 이어가니
- 11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흠족한 비를 내리겠는가
- 12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고 싶구나
- 13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서
- 14 외나무 썩은 다리 (건너) 불정대를 오르니
- 15 아주 높은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 16 은하수 큰 굽이를 마디마디 베어 내어
- 17 (십이 폭포의 모습이) 실이 풀린 모습 같고 베가 걸려 있는 것 같으니
- 18 산수의 모양을 그리고 설명해 놓은 책에는 열두 굽이라고 되어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더 많아 보이는구나
- 19 이태백이 지금 살아 있어서 다시 (나와 폭포의 아름다움에 대해) 의논한다면
- 20 (중국) 여산의 폭포가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할 것이다
- 21 산중을 계속 보겠는가 동해로 가자꾸나
- 22 뚜껑 없는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가서 산영루에 오르니
- 23 맑고 푸른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는 새는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고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4 수능 <시조 모음>

-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蓋)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 (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 | 로다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2013 수능 <성산별곡>

-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하였는가
-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가
- 박 소리 핑계하고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風入松)이었구나
-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현대어 풀이

- (가) 천만 리 머나먼 곳에 고운 임을 두고 돌아오다가
내 슬픈 마음을 둘 데가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물도 내 마음 같아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 (나) 푸른 풀이 우거진 무덤에 자느냐 누웠느냐
그 곱고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가고 백골만 묻혔느냐
술 한잔 권해줄 이가 없으니 몹시 슬프구나
- (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늘의 운수에 달려 있으니 고려
왕조의 궁터인 만월대에도 가을 풀만 무성하다
오백 년의 고려 왕업이 목적의 피리 소리에나 담겨 불리고 있으니
석양에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가 슬픔을 이기지 못 하는구나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현대어 풀이

- 산 속에 벗이 없어서 책들을 쌓아 두고
- 오래 전의 인물을 거슬러 세어 보니,
- 훌륭한 인물도 많거니와 지혜와 용기가 뛰어난 영웅도 많기도 많구나
- 하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뜻이 없었으랴마는
- 어찌하여 시대의 운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였는가
-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다
- 기산의 늙은 고불은 귀는 어찌 씻었던가
- 박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표주박을 버린 허유의 지조가 가장 높다
- 사람의 마음이 얼굴과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 세상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 (술잔을)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 마음에 맺힌 시름이 조금이나마 사라지는구나
-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을 연주하자꾸나
-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도다
- 높고 먼 공중에 뜬 학이 이 고을의 참된 신선이다.
- 이전에 달 아래서 혹시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는가?
- 손님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바로 참된 신선인가 하노라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3 수능 <독자왕유희유오영>

<제1수>

- 1 벗님네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 2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 3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찌리

<제2수>

- 4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 5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인가
- 6 우리는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3수>

- 7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 8 복건 망혜(幙巾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 9 돌아와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리라

<제4수>

- 10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 11 창 달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 12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5수>

- 13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 14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라
- 15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2012 수능 <북찬가>

- 1 앓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 2 잠든 벗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 3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너 상시(常時)과저
- 4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찾아짐에
- 5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 6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 7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 8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 9 묻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 10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 11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 12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 13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 14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 15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현대어 풀이

<제1수>-작가

- 1 친구들아, 남산에 가기로 했던 좋은 약속 잊지 마오
- 2 익은 술은 점점 쉬고, 부쳐 둔 화전(꽃부침개) 상해 가네
- 3 자네가 가지 않는다면 (나) 혼자라도 가면 어찌리

<제2수>-친구

- 4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흥겨워 돌아다니는구나
- 5 어제 곡성에 다녀오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인가
- 6 우리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일 해 보려네

<제3수>-작가

- 7 저 사람 믿을 곳이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 8 모자 쓰고 신발 신고 실컷 다니다가
- 9 돌아와서 즐겁게 놀았던 일을 글로 지어 후손에게 전하리라

<제4수>-또 다른 인물

- 10 우리도 (놀러)갈 힘 없다. 숨도 차고 다리가 아파서
- 11 창문 달고 따뜻한 방에서 마음껏 퍼져서
- 12 배 위에 아기들을 올려놓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지내고 있겠다

<제5수>-작자

- 13 친구들이야 있든지 없든지, 남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 14 좋은 시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남의 말 때문에 보지 아니하라
- 15 평생의 이 즐거운 마음을 실컷 펼치고 오리라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현대어 풀이

- 1 앓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 2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한숨만 나오고, 한숨 끝에는 눈물 흘리네
- 3 밤마다 꿈속에서는 (어머님이) 보이므로, 꿈을 현실처럼 여기고 싶구나
- 4 학털처럼 머리가 하얗게 늙으신 자애로운 어머니를 못 보니 기러 기발에 편지를 달아 소식을 자주 보내게 되는데
- 5 기다린들 소식이 올까, 소식이 한 번 오려면 한 달이 넘네.
- 6 어머니를 못 뵈 때는 기다리는데 막상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시원할까.
- 7 늙으신 어머니 소식도 내가 모르는데, 내 소식을 어머니가 알리가 있겠는가?
- 8 산과 물로 막힌 길 때문에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해 생긴 슬한 괴로움을 누가 헤아려 줄 것인가
- 9 밝은 달에게 묻는다. 내가 있는 곳과 어머니가 계신 곳 모두를 비추고 있느냐
- 10 떠 있는 구름을 따르고 싶다. 남쪽 하늘,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빨리 가는구나.
- 11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 집 앞을 둘러 흐르고 싶구나.
- 12 날아가듯 새가 되어서 어머님 계신 창 앞에 가서 노닐고 싶구나.
- 13 내 마음을 헤아려 보니, 어머님께서 나를 그리워하며 품으신 생각과 정은 말하여 무엇하리.
- 14 여의주를 잃은 용이요, 키가 없는 배의 처지가 아닌가
- 15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어디에 가서 머무를까.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0 수능 <면앙정가>

- 1 무등산 한 활개 외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 2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 3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 4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 5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 6 선장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 7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앓혔으니
- 8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 9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 10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 11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 12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 13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 14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 15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 16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 17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흩으락
- 18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으니노
- 19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 20 외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인가
- 21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잇는 듯
- 22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 23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 24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 25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 26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 27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샤

현대어 해석

- 1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 2 (무등산을)멀리 떼어 버리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 3 끝없는 넓은 들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 4 일곱 굽이가 한데 뭉츠려 무더기 무더기 벌여 놓은 듯하구나.
- 5 그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 6 선장을 막 깨어 머리를 앓혀 놓은 듯하며,
- 7 넓고 편편한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앓혀놓았으니,
- 8 마치 구름을 탄 푸른 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하다.
- 9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 내린 물이
- 10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잇달아) 퍼져 있으니,
- 11 넓거든 길지나 말지, 푸르거든 회지나 말지,
- 12 쌍룡이 몸을 뒤흔는 듯, 긴 비단을 가득하게 펼쳐놓은 듯,
- 13 어디를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 14 달려가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하다.
- 15 물 따라 펼쳐진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하얗게 펼쳐졌는데,
- 16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통정하려고
- 17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 18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서로 따라 다니는고?
- 19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 20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인가.
- 21 높은 듯 낮은 듯, 굽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 22 숨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며,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며,
- 23 어지러운 가운데 유명한 체하여
- 24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여러 산봉우리 가운데, 추월산 머리 삼고,
- 25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 26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어져 있는데,
- 27 멀리 가까이 푸른 언덕에 머문 것(펼쳐진 모양)도 많기도 많구나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9 9월 평가원 <한거십팔곡>

생평(生平)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아
마음에 하고저 하여 십재황황(十載惶惶)*하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하야 여공불급(如恐不及)*하느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하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랴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하느뇨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현대어 풀이

평생에 원하는 것이 충과 효뿐이로다.
이 두 일 아니하면 짐승과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견증이 이렇다가 공명이 늦었어라.
스승을 찾아 사방을 헤매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자연에 놀러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기는 바에 어긋나구나.
홀로 갈림길에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제4수>

나아가면 임금 섬겨 백성에 은덕 미치고 들어오면 달빛 아래 고기 낚
고 밭을 가네
총명하고 밝은 군자는 이것을(은둔생활)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는 위태하니 가난한 삶을 살아가리. <제8수>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감에도 도가 있으니 버리면 굳이 구하랴.
산 남쪽 물 북쪽(서울)에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나라 구할 보물 가졌다고 오라 말라 하느냐? <제16수>

성현이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
숨거나 나아가거나 도가 어찌 다르리
한 가지 도(道)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하리 <제17수>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9 6월 평가원

<서경별곡>

<제1연>
1서경(평양,사랑의 장소)이 아즐가(감탄사) 서경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후렴구, 의미 無)
2닷곤딕 아즐가 닷곤딕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3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논 질삼뵈(화자: 여자)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4괴시란딕 아즐가 괴시란딕 우러곰 좇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5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시련) 디신돌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후렴구, 의미 無)
6간히쑤(끈) 아즐가 긴히쑤 그초리잇가 나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7즈은 히(오랜 시간)를 아즐가 즈은 히를 외오곰 녀신돌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8신(믿음)잇든 아즐가 신잇든 그초리잇가 나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만분가>

1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2이 몸이 식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3녹아지고 식여지어 혼백(魂魄)조차 흠어지고
4공산(空山) 측루(觸樓)*같이 임자 업시 구닐다가
5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셔
6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7윤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8일만 이천 봉에 막음껏 솟아올라
9갓을 돌 볼근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러
10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11흔(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12님의 집 창밖기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13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14월중(月中) 소영(疎影)*이 님의 옷에 빗쳐어든
15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16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17고결(高潔)흔 이내 생애 죽림(竹林)에나 부치고저
18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빙을 혼자 띄워
19백구(白溝) 건네 저어 건덕궁(乾德宮)에 가고지고

현대어 풀이

1서경이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2새로 닦은 곳인 소성경을 사랑합니다만,
3임을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
4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5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6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7임과 떨어져 홀로 천 년을 살아간들
8임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1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2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3녹아지고 죽여지어 혼백조차 흠어지고
4공산 측루같이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5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6바람 비 뿌린 소리가 임의 귀에 들리거나,
7만겁이나 윤회를 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8일만 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9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10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겠구나.
11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삼아
12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 되어
13설중에 혼자 피어 침변에 시드는 듯, 달빛 속의 희미한 그림자가
임의 옷에 비취거든
15불쌍한 이 얼굴을 너로구나 반기실까.
16동풍이 유정하여 암향을 불어 올려
17고결한 이내 생계 죽림에나 부치고 싶구나. 빈 낙숫대 비껴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18백구 건너 저어 건덕궁에 가고 지고.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8 6월 평가원 <오론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가르시니
부모(父母)곤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이 덕(德)을 갇히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샏다 <제2수>

종과 주인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별과 개미가 이 뜻을 몬져 아니
한 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 지나 마옵사이다 <제3수>

지아비 발 갈라 간 데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르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2017 9월 <방옹시여>

(가)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뭇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초즈리 뉘 이스리
방둥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호노라

(나)섯그래 기나 조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닐 거신가 호노라

(다)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퍼졌다
무정(無情)흔 화류(花柳)도 때를 아라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노고

(라)어지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꽃지 다 피엿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놀 향한 곱흔 시름을 못내 푸러 호노라

(마)창(窓)밖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이러 보니
혜란 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어즈버 유한흔 간장(肝腸)이 다 끈칠까 호노라

현대어 풀이

사람 사람들마다 이 말삼을 들으려우나,
이 말삼이 아니면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것이니,
이 말삼을 잊지 않고 배우고야 말 것입니다. <제1수>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셨으면 이 몸이 없었으리рода.
이 덕을 갇고자 하니 하늘같이 끝이 없습니다. <제2수>

종과 상전의 구별을 누가 만들어 내었던가.
별과 개미들이 이 뜻을 먼저 아는구나.
한 마음에 두 뜻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속이 지나 마십시오. <제3수>

남편이 발을 갈라 간 곳에 밥을 담은 광주리를 이고 가서,
밥상을 들이되 (지아비의) 눈썹 높이까지 공손히 들어 바칩니다.
(남편은) 진실로 고마우신 분이시니 (삼가고 조심해야 할) 손님을 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4수>

형님이 잡수신 젓을 나까지 먹습니다.
아아,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개나 돼지라 할 것입니다. <제5수>

젊은이는 부모님 같고, 어른은 형님 같으니,
이와 같은데 공손하지 않으면 (짐승과) 어디가 다른 것인가.
나로서는 (노인과 어른들을) 맞이하게 되면 절하고야 말 것입니다. <제6수>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현대어 풀이

(가)
산골 마을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모두 눈에 덮이고 말았구나
사립문을 열려 하지 말거라 날 찾을 이가 누가 있겠느냐
밤 하늘에 떠 있는 한 조각 저 밝은 달만이내 벗인가 하노라

(나)
서까래가 길든 짧든 기둥이 기울었든 틀어졌든
작은 초가집을 비웃지들 말거라
아! 산에 가득 자란 덩굴 풀에 비친 달이 다 내 것이로다

(다)
한식날에 비가 온 이 밤에 봄빛이 퍼졌구나
마음과 정을 알 리 없는 꽃과 나무들도 때를 알아 이렇게 피었거늘
어찌하여 우리의 임은 간 후 오지 않는 것인가

(라)
어젯밤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구나
연꽃이 피어 있는 저 연못가를 향해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걸어 두고
누구를 향한 이 깊은 걱정 마음을 풀어 보고자 하노라

(마)
창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임이 온 줄 알고 일어나 보니
난초가 자라난 저 지름길에 낙엽이 떨어진 것이었구나
아! 길이가 정해져 있는 나의 내장들이 다 끊어질 것만 같도다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7 6월

(가) 동동

덕(德)으란 공빅에 받좁고 복(福)으란 림빅에 받좁고
덕(德)이어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딕
누릿 가온딕 나곤 몸하 후올로 널셔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블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돌윗고지여
늑믹 브롤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나)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눈
븜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즐가 대평성딕(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후고
븜리고 가시리잇고 나눈
위 증즐가 대평성딕(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누논
선후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딕(太平盛代)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눈
가시논 듯 도셔 오쇼셔 나눈
위 증즐가 대평성딕(太平盛代)

현대어 풀이

(가)
덕은 뒤에 바치고 복은 앞에 바치오니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진상하러 오십시오.
<서사>

정월의 시냇물은 아아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은 홀로 지내는구나
<정월령>

2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 놓은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도다
<이월령>

3월 지나며 피어난 아아, 늦봄의 잔달래꽃 같은 임이여
남이 부러워 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도다.
<삼월령>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나)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저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저는 어찌 살아가라고
버리고 가시렵니다?

붙잡아 두고 싶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까 두려워

서러운 임 보내 드리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6 9월 (가) 탄궁가

- 1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 2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 3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 4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 5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 6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 7 봄날이 따뜻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 8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 9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10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 11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 12 춤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13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 14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 15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 16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 17 싸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 18 환국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 19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 20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 21 장초(莠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 22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 23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 24 베틀 북도 쓸 데 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25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 26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 27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어 접대할꼬
- 28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 29 이 원수 가난귀신 어이하어 여의려뇨
- 30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 31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 32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 33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 34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 35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 36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 37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 38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 39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 40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꾀로 여윌려나
- 41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 42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현대어 풀이

- 1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하게 고루 하련만
- 2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괴로운고
- 3 삼순 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 4 십 년 동안 한 갓을 쓰거나 못 쓰거나
- 5 안연의 공간이 비었다고 나같이 비었으며
- 6 원헌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
- 7 봄날이 더더 빠국이가 재촉커늘
- 8 동쪽 집에 쟁기 얻고 서쪽 집에 호미 얻고
- 9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10 올벼씨 한 말은 반넘게 쥐 먹었고
- 11 기장피 조팔은 서너되 안되거늘
- 12 춤고 배고픈 식구 이리하여 어찌 살리
- 13 이봐 아이들아 어쨌거나 힘 써서 일해라
- 14 죽을 쑀어 국물은 상전이 먹고 좋은 진국을 종을 주었는데
- 15 (종놈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콧방귀만 킂다.
- 16 올벼는 한 발만 수확하고 조와 팔은 다 묵이니
- 17 살히피 바랑이 등 잡초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 18 환자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 19 요역 공부는 어찌하여 채워 낼까
- 20 백방으로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 21 잡초가 아무 걱정 모르는 것을 부러우나 어찌하리
- 22 시절이 풍년인들 지어미 배부르며
- 23 겨울을 덥다한들 몸을 어찌 가리울까
- 24 베틀북은 쓸데없이 빈 벽에 걸려 있고
- 25 시루 술도 버려두니 붉은 녹이 다 끼었다
- 26 세시절기 생일제사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친척
- 27 내빈왕객 어찌하여 대접할까
- 28 이 몰골 지니고 있어 어려운 일 많고 많다.
- 29 이 원수 이 가난 귀신을 어찌해야 여의겠나
- 30 술에 음식을 갖추어서 이름 불러 전송하여 좋은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하니
- 31 씨끄럽게 떠들며 화를 내며 하는 말이
- 32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쁨과 슬픔을 너와 함께 하여
- 33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줄이 없었거늘
- 34 어디 가서 뉘 말 듣고 가라고 말하는가
- 35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험박커늘
- 36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이 다 옳도다
- 37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 38 너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나니
- 39 위협하며 피하여서 잔꾀로 여의겠나
- 40 하늘이 준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찌하리
- 41 빈천도 내 분수니 설워하여 무엇하리.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6 9월 (나) 전원사시가

양파(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껴 잇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비에 다 피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머거 논밭 갈게 허야라

<제2수>

잔화(殘花) 다 딴 후에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닭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름 썩오자

<제3수>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앙(重陽)이 거에로다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허마 아니 니것느냐
아히야 자해(紫蟹)황계(黃鷄)로 안주 장만허야라

<제6수>

북풍이 노피 부니 압 뒤희 눈이 딴다
모첨(茅簷) 촌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두죽(豆粥) 니것느냐 먹고 자랴 허로라

<제7수>

이바 아히돌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현스흔 세월이 소년(少年)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허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9수>

현대어 해석

별이 잘 드는 언덕에 풀이 자라있으니 늦봄이 되었구나
작은 정원에 복숭아꽃은 밤비에 다 폈구나
아이야 소를 잘 먹여 논과 밭을 갈게 하여라

<제2수>

남은 꽃 다 진 뒤에 수풀이 깊어진다.
한낮의 외딴 마을에 낮닭의 소리로다.
아이야 계면조(국악에서 사용되는 음조) 불러라 긴 조름 깨어보자.

<제3수>

동쪽 울타리(국화를 심은 곳을 의미함)에 국화피니 중앙절이 거의로다
(다가왔구나)
자채로 빔은 술이 아직 아니 먹었느냐
아이야 꽃게와 누런 닭으로 안주 장만하여라

<제6수>

북풍이 높이 부니 앞산에는 눈 내린다.
초가지붕 찬 빗이 석양에 거의로다.
아이야 콩죽 익었느냐 먹고 잘까 하노라.

<제7수>

이봐 아이들아 새해 온다 즐거워 마라
야단스러운 세월이 젊음을 앗아 가느니라
우리도 즐기다 이 백발이 되었구나

<제9수>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6 6월

(가) 어이 못 오된다~

1어이 못 오든다 무슨 일로 못 오든다

2녀 오느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비목* 외걸새에 용거북 조물쇠로 수기수기 잠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3월 들이 설하 날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랴

(나) 청천에 떠서~

1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닌 말 들어 2한
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디 닌 말 잊지 말고 웨웨터*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워 갈 제 적막 공궁(空宮)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닌 그러
초마 못 살네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3우리도 님 보러 밧비 꺾옵는 길시오매 전홀동 말동 하여라

(다) 농가

1 도롱이에 호미 걸고 뿔 굽은 검은 소 몰고

2 고동풀 뜨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3 어디서 품진* 벗님 함께 가자 하느고

<제2수>

1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2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돌려내자

3 쉬 짚은 긴 사례는 마주 잡아 돌려내자

<제3수>

1. **말은 듣는 대로 듣고 벌은 쥘 대로 쥘다**

2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불리 볼 제

3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현대어 품어

(71)

1어이하여 못 오시나요 무슨 일로 못 오시나요

2당신이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안에 담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안에는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안에 당신을 결박해 놓고 쌍배목 외걸새 용 거북 자물쇠로 꼭꼭 잠겼습니까 어찌 그리 안 오십니까

3한 달이 삼십일이니 날 보러 올 하루가 없겠습니까

(L1)

1푸른 하늘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야 날지 말고 내 말 좀 들으렴.

2한양성 내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을 잊지 말고 거듭 외쳐 불러 말하길 "달 뜬 황혼이 지나 갈 때 적막한 빈 방에 던져진 듯 혼자 앉아 임 그리워 차마 살지 못하겠노라." 하고 부디 한 마디 말이라도 전해 주렴.

3우리도 임 보러 바빠 가는 길이라 전할지 말지 하노라.

(다)

<제2수>

1 농사일을 할 때 입는 비옷에 호미를 걸고, 땀이 뻘어진 검은 소를 몰고

2 (소에게) 길가에 난 풀을 먹게 하면서, 골짜기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향해 내려갈 때

3 어디서 힘 드는 일을 서로 거들어 주었던 이웃이 함께 가자고 하는가

<제3수>

1 (농사를 방해하는 풀들을) 휘감아서 걷어 내자. (농사를 방해하는 풀들이)
마구 자라난 밭에서 (농사를 방해하는 풀들을) 휘감아서 걷어 내자.

2 바랭이와 여뀌를 밭에서 움푹 들어가 있는 곳마다 휘감아서 걸어 내자.

3 (농사를 방해하는 풀들이) 쉽게 자라는 넓은 밭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농사를 방해하는 풀들을) 휘감아서 걷어 내자.

<제4수>

1 땀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햇볕은 찢 대로 찢다.

2 부드럽고 맑은 바람에 옷깃을 풀어헤치고, 긴 휘파람은 흐르는 대로 불 때

3 어이서 길 가는 나그네가 (우리를) 아는 것처럼 (이곳에) 머물러 있는가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라) 농가월령가

- 1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 2 비 온 끝에 별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 3 떡갈잎 퍼질 때에 뽕꼭새 자주 울고
- 4 보리 이삭 패어 나니 꾀꼬리 노래한다
- 5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 6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 7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綠陰) 속에 닫았도다
- 8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 9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록*을 적게 하소
- 10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 11 물 댄 논을 써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 보세

2015 9월 <만분가>

- 1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매오
- 2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 3 천문(天門)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 말동
- 4 차라리 식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 5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녀이 되어
- 6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 7 삼청동리(三淸洞裡)*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 8 바람에 흩날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 9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 10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쓸거시 사리리라
- 11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 12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 13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 14 가 태부(賈太傅)*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 15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니
- 16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 17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임을 만나
- 18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 19 오색(五色)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을 못 하여도
- 20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갚으리라
- 21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 22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 23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사*
- 24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 25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현대어 풀이

- 1 사월이라 이른 여름이 되니 입하(여름이 시작되는 날)와 소만(모든 생명이 자라나 가득 차는 날)이라는 절기가 돌아오는 구나
- 2 비 온 뒤 햇빛이 비치니 날씨도 화창하다
- 3 떡갈나무 잎이 넓적하게 벌어질 때에 뽕구기도 자주 울고
- 4 보리에 열매도 많이 열리니 꾀꼬리가 노래한다
- 5 농사도 가장 활발할 때고 누에를 기르는 일도 활발할 때라
- 6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누에를 기르는 일에) 온 정신을 기울이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 7 나뭇가지로 만든 쓸쓸하고 조용한 문을 나무와 풀이 우거져 푸른 자연 속에 닫아 두었다
- 8 실을 내어 천을 짓는 일의 기초가 되는 목화를 많이 가꾸시오
- 9 수수, 동부, 녹두, 참깨를 심은 밭에 다른 곡식들을 적게 심으시오
- 10 떡갈나무 잎을 꺾어서 거름으로 만들 때는 풀을 베어 섞어서 만드시오
- 11 물을 끌어다 놓은 논의 바닥을 써레를 사용하여 가지런하게 하고 벼의 싹을 일찍 옮겨 심어 보자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 1 하늘 위의 백옥경, 궁궐의 십이 누각이 어디인고?
- 2 구름 깊은 곳에 (하늘의 신선이 산다는)자청전이 가리고 있으니
- 3 구만 리 먼 하늘에 있는 백옥경, 궁궐을 꿈에라도 갈 수나 있을까?
- 4 차라리 죽어 억만 번 변화하여
- 5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가 되어 (울고자 하는데)
- 6 배꽃 가지 위에 밤낮으로 못 울거든
- 7 (신선이 산다는)고을, 궁궐의 저문 하늘의 구름이 되어
- 8 바람에 흩날리 천재의 거처, 궁궐에 날아올라
- 9 옥황상제, 즉 성왕의 상 앞에 가까이 앉아
- 10 가슴에 쌓인 말 실컷 드리고 싶구나
- 11 아아 이 내 몸이 세상에 늦게 태어나니
- 12 황하수 맑다마는
- 13 억울하게 죽은 ‘굴원’이 다시 태어난 몸인지 슬픈 마음이 끝이 없고
- 14 한나라 때 가의처럼 시기를 받아 좌천되니 난 가의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고?
- 15 형강, 전남 순천 (유배생활이 오래 되어)은 고향같구나. 십년을 유배생활로 떠돌아다니니
- 16 흰 갈매기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 17 아양을 떠는 듯, 사랑하는 듯 남 같지 아니한 님, 성종임금을 뵈게 되니
- 18 꿈이지만 이 궁궐의 꿈조차 향기롭구나.
- 19 오색실이 이음 짧아 님의 옷을 다 못 만들어
- 20 임, 바다 같은 성종임금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리라 (마음먹고)
- 21 깨끗한 마음으로 임, 성종임금을 모시려 하였더니
- 22 한양 어젯밤에 무서리 같은 무오사화가 일어나니
- 23 해질녘 긴 대나무에 의지하여 서있는데, 무오사화로 인해 푸른 옷소매도 차갑구나.
- 24 난을 꺾어 쥐고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니
- 25 약수가 가리고 있어, 궁궐로 가는 길을 볼 수가 없구나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5 6월

(가) 도산십이곡

이런들 엇더허며 저런들 엇더허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허료
흐믈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허료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네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제2수>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옳은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홀가 <제3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죠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죠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허애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ㅣ로다
떼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허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므음 두는고 <제5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롭과 혼가지라
흐믈며 어악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으
리 <제6수>

현대어 해석

[제1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공명이나 시비를 떠나) 산
다고 해서 어떠하랴?
-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고질병처럼 된 버릇을 고쳐서 무엇하
랴?

[제2수]

-안개와 놀의 멋진 자연 풍치로 집을 삼고 밝은 달과 맑은 바람으로
친구를 삼아,
-태평스런 세상에 자연과 더불어 늙어 가네.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오직 바라는 일은 잘못이나 저지르는 이나 없
었으면 한다.

[제3수]

-순풍(예부터 내려오는 순박한 풍속)이 이미 사라졌다 하니 이것은 참
으로 거짓말이다.
-인성(사람의 성품)이 본디부터 어질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옳은 말이
다.
-천하의 수많은 슬기로운 사람(영재)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것을 어찌
속여 말할 수 있을까?

[제4수]

-그윽한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듣기 좋아
-흰구름이 산마루에 걸려 있으니 자연의 경치가 보기 좋구나.
-이 중에 우리 임금님을 더욱 잊을 수가 없구나.

[제5수]

-산 앞에 높은 대가 있고, 대 아래에 물이 흐르는구나.
-떼를 지어 나는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하여 희고 깨끗한 갈매기(어진 사람)는 나로부터 멀리 마음을 두
는고(이 좋은 곳을 떠날 생각만 하는가!)

[제6수]

-봄바람이 부니 꽃은 산에 가득 피어 있고, 가을밤에는 달빛이 누대에
가득하구나.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더구나 고기는 물에서 뛰놀고, 솔개는 하늘을 나니 흘러가는 구름은
그늘을 짓고, 밝은 태양이 빛나는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찌 다
함이 있겠는가.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2014 9월 <매화사>

매영(梅影)이 부딪친 창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겼구나
이삼 (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제3수>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앗을쏘냐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제8수>

현대어 풀이

매화나무 그림자 비친 창에 가야금을 타는 미인이 비스듬히 앉아 있
는데

두어 명의 노인은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는구나.
이윽고 술잔을 들어 술을 권할 때 달 또한 차오르는구나.

<1수>

빙자옥질(매화)이여! 눈 속에 피어난 너로구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저녁달을 기약하니,
아마도 맑은 운치와 높은 절개를 지닌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3수>

바람이 눈을 몰아쳐 (눈이) 산창에 부딪치니
찬 기운이 새어 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하니
아무리 얼리려 한들 봄뜻이야 빼앗을쏘냐. <제6수>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온 세상이 눈에 덮여 있는데 어찌 감히 필 것인가?
알겠구나, 백설 속에서도 봄빛을 보이는 것은 매화밖에 또 누가 있으
라. <제8수>

공부 횟수	1회	2회	3회
풀이 만족도	A, B, C, D	A, B, C, D	A, B, C, D

끝